

## 아리랑 우리나라 15번째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 공동체 참여·무형유산 보호 기반 마련 '만장일치'  
제주잠녀·잠녀문화 등재 작업·철머리당영등굿 중심 활성화 등 탄력 기대

등록 : 2012년 12월 06일 (목) 22:18:06 | 승인 : 2012년 12월 07일 (금) 09:10:32  
최종수정 : 2012년 12월 06일 (목) 22:18:40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우리 민족 정서의 상징인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우리 시간으로는 6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의 대표목록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전승, 국가정체성과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온 점을 주목했다. 특히 등재 계획 수립에 공동체가 참여했으며 정부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만장일치로 등재를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대표목록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또 현재 한 건의 대표목록 확보와 새로운 대표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 입장에서 여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지난 2009년 지역 전통무속문화를 상징하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대표목록에 등재됐으며, 현재 제주잠녀·잠녀문화의 대표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별 신청 목록 제한 등의 제약 조건으로 '2014년 등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현재 문화재청에 우선 심사 대상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의 경우 2009년 8월 정선아리랑의 등재를 추진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난해 6월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소수민족 전통문화 및 풍습)에 등록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 올 1월 우선 심사 대상 선정에 이어 6월 수정 등재신청서 제출 등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

아리랑 등재로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 개편 작업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제주잠녀·잠녀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검증(국가무형 문화유산)작업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아리랑 등재에 따라 문화재청이 2013년부터 5년간 33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등재 이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칠머리당영등굿을 중심으로 한 제주 무속문화를 집대성하는 작업 역시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